



보도자료

“조심조심 코리아 -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”

▶ 배포일시: 9.14(금) 조간,
인터넷 9.13(목) 12:00 이후
▶ 총 4쪽(사진 있음)

▶ 담당: 교육미디어실 김민준 과장
- TEL : 032 - 5100 - 539/010-9105-5188

※ 참조 : 문화홍보실 배준호
- TEL : 032 - 5100 - 676

‘외국인근로자와 대화 스마트해 진다’

안전보건공단, 10개 국가별 300개 문장 번역어플 개발보급
일상생활, 안전, 건강 등 해당 국가별 언어로 발음

<사례1> 2008년 6월 한국인 작업자가 외국인근로자(중국동포,29세)에게 떨어뜨린 작업물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지만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한 외국인근로자가 가벼운 눈웃음을 짓자 이를 비웃음으로 오해한 한국인 작업자간 폭행사건 발생.

<사례2> 2012년 1월 경기도 광주시 가공기계 사업장에서 외국인로자(방글라데쉬, 33세)가 회전중인 기계를 정지하지 않고 기계에 끼인 이물질 제거하던 중 운전중인 기계에 손이 감겨 재해를 입음.

-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이 개발·보급된다.
- 안전보건공단(이사장 백헌기)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,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통역기능의 ‘위기탈출 다국어 회화’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.
- 이번 어플리케이션은 중국을 비롯해 태국, 베트남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몽골, 방글라데시, 우즈베키스탄, 파키스탄, 스리랑카 등 10개 국가별 언어를 담고 있다.

- 스마트폰에 어플을 내려 받은 후 한국말로 된 대화 내용과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을 선택하면 해당 국가별 언어로 문장이 발음된다.
 - 예를 들어, 작업관리자가 ‘사용한 물건을 원위치에 가져다 놓으세요’라고 전달하고 싶으면, 한글로 된 문장내용과 국가를 선택하면 해당 국가의 언어로 내용이 발음된다.
 - 반대로 외국어를 한국어로도 지원해, 외국인근로자가 자국의 언어로 표현된 문장을 선택하면 한국어로 발음된다.
- 공단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족·신상에 관한 ‘일상생활’, 작업지시 등의 ‘작업 중 사용’, 휴가나 급여 관련 ‘직장생활’, 금지 등의 ‘안전표지’, 신체 상태에 관한 ‘건강관련’, ‘보호구 및 방호장치’ 등의 6개 상황으로 구분해 놓았다. 또한, 6개 상황별로 20개에서 90여개의 문장을 담아 총 300개의 문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.
 - 특히, 300개의 문장 중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문장만을 별도로 구성하는 ‘즐거찾기 기능’으로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했으며, 해외출장이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버전을 별도로 제공한다.
-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, 아이폰은 9월 말부터 앱스토어를 통해 제공한다.
- 공단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700개 문장을 추가하는 한편, 2014년에는 기존 10개국 외 3개국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.
- 한편, 공단이 최근 외국인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에서 일할 때 ‘의사소통의 문제’(58.1%)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, 사업주 125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‘의사소통’(58.1%)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
 - * 한국에서 일할 때 문제점(외국인근로자 대상 조사) : 의사소통의 문제(58.1%)>서두르는 문화(41.9%)
 - *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제일 필요한 것(사업주 대상 조사) : 의사소통(58.1%)>지속적인 교육(41.9%)

○ 공단 관계자는, “이번 어플리케이션 보급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,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(끝).

[참고자료 -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현황]

○ 최근 3년간 전체 산업재해자 및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자 현황

구분		계	2009년	2010년	2011년
전체 재해	재해자	289,758	97,821명	98,645명	93,292명
	사망자	6,495명	2,181명	2,200명	2,114명
외국인 근로자	재해자	17,341명	5,233명	5,599명	6,509명
	사망자	308명	101명	96명	111명

※ 전체 산업재해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 수치임/ 재해자 = 부상자 + 사망자

○ 2011년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자 현황

-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, 지난해 4천 331명이 발생한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자가 발생했으며, 다음으로 건설업,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다.

<2011년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재해현황> (단위 : 명)

구분	합계	제조업	건설업	서비스업	기타
재해자수	6,509	4,331	1,149	869	160

○ 2011년 국적별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자 현황

<2011년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 재해현황> (단위 : 명)

구분	합계	한국계 중국인	중국인	베트남	스리랑카	우즈베키스탄	인도네시아	필리핀	태국	파키스탄	몽골	기타
재해자수	6,509	3,462	694	579	299	250	180	176	142	137	135	455

○ ‘위기탈출 다국어 회화’ 어플리케이션 자료사진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홍보실 배준호 대리(☎ 02-5100-67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